

생을 다해 모래시계를

이미;

여긴 이따금 알 수 없을 끝 간 데.

이미 빠진 동굴.

이미 닫힌 나의 배후.

이미, 이미 떠오르는 푸르께한 찬 눈빛들.

그건 이미 알고 있던 배운 적 없을

*

이곳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김치호의 복원 모형을 전시한다. 김치호는 고양이과 고대 생물이지만 이름의 호 자가 虎[범 호]인 이유는 현재의 호랑이와 닮아 있기 때문이라고, 도슨트는 설명한다.

전시관의 유리벽 너머 매서울 눈

온전한 박제 동물일까.

흑은 다 썩고 하얀 뼈만 남겨서

마주칠 수 없는 눈구멍만 공허할까.

더듬어 점자 설명문을 읽으면 더 이상 살지 않는, 먼 옛날의 초원위를 맹렬하게 내달렸던 그들 무리를 나는 바로 떠올릴 수 있었다.

맥없는 초식동물 뒤를 쫓아가

그 가녀린 목덜미에 제 기다란 송곳니를

덥석, 하고 박아 넣는 어느 한 장면을

★

시간은 모래 흐르는 소리,
라고 배웠지.

누군가 한순간에
이 행성을 거꾸로 뒤집어
지구상의 모든 크고 작은 모래알들을
탈탈탈 털어 과거로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손을 뻗어 머리맡에 놓인 모래시계를 뒤집는다.

썩아아아, 해변의 소음과도 같이
잔잔히 밀려드는 시간들;

내 손가락 끝을 따라 울퉁불퉁했던 중생대의 암모나이트 화석 DNA
분석 기술을 통해 모형을 떠 만들었다던 일만 년 전 코끼릿과 매머드
최대한 넓은 보폭으로 대어섯 발자국은 걸어야 했을 만큼 커다랗던 이
름 모를 뿔 공룡과 익룡들

이 소리가 멎고 난 후,
또 하나의 생물종은 절멸하고 말 것이다.

★

지금 여기, 바로 내 앞에 있을 검치호가 두려워지려 하네. 노출된 목
덜미가 서늘하군. 지퍼를 올릴까. 도망을 쳐야 하나. 정설은 아니라지
만, 먹이 경쟁에 떠밀려서 또는 소행성 충돌로 인해 검치호는 오래전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며 내 앞의 도슨트가 긴 설명을 끝마친다.

★

애당초;

불붙은 적 없었던 촛불이나 횃불 같은 것.

애당초 쓸모를 잃은 나의 눈.

애당초 앞과 뒤가 똑같았으니, 위아래가
부질없고 감감했을 뿐이니 그러니까 나는
애당초가 손에 들린 그 상태로 조심히
굴속으로 향했지

이미,

생을 다해 오래전부터 파 들어간
빛이 없는 나의 동굴. 그 끝엔
막 숨어든 네가 있었다

먹빛의 얼굴 위로

푸르르르,

파랑_{波浪}처럼 와 닿던 후더운 네 숨결

어둠 속의 마지막

검치호 한 마리.

“다 죽었는데 뭐하러 왔어?”

★

이곳 연안에서는 해식 동굴을 직접 탐험할 수 있다고 한다. 수천 년
에 걸쳐, 아주 더딘 속도로 만들어진 이 동굴은 호구^{虎口}라고 불립니다.
입을 크게 벌려 범의 아가리를 흉내 내면서, 가이드가 말한다.

이 우스꽝스러운 이름에도 다 연유가 있는 법, 이라며

걸음을 막 멈춰 서는

관광객들의 바른편을 가리키면서

하이쿠俳句를 쓰자

—

참개구리의 계절도 왔으니 하이쿠를 쓰기로 한다.

찬란한 금빛의 별을 지면 삼아 눈앞의 저 운치를 맹탕 있는 그대로.
마당가 꽃대 세워 싱그런 파초들과 아직은 찬 동풍의 결.

쇄찰법_{刷擦法}으로 속속 그어 놓은 듯, 우후의 질감이라 하든 한 치의
숨김 없이 부드러우면서도 막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씩씩한 기개 또
한 느낄 수가 있는 법이네.

돌산과 흙산, 그 사이를 흘러가는 운무의 심정으로 일언일구를 쓰겠
다.

그렇구나, 나는 훑으면서 기어이, 스며들고 싶구나.

앞뜰 바윗돌 아래를 파고드는 곰팡의 축축함. 그것은 곰팡이 곰팡을
토해 내려는 지지부진한 펼침; 기어이.

이러나저러나, 작년 요 언저리 심어 두었던 죽도화는 어디 갔는고.
더 감추지 않기로 했었는데 말이다.

二

향이 다만 남아서 향에 대해 써 보기로 한다.

서양의 프루스트 씨에 의하면, 향은 저의 기억을 또 불러오기도 한
다 하여, 죽도화의 향—숭고하면서 어슴푸레하게 끼쳐 오는—이 나를
어느 한 시절로 들어앉힌다.

뜻 없이 우짖는 새나 개굴개굴 노래하다 스러져 가는 개구리, 혹은

도롱이 입고 대문 앞을 금언인 듯 지나가는 노승의 나날.

몇 발짝 멀찌가니 떨어져 뒤따라오던 동자가 나를 본다. 나도 그 동자를 본다.

싱그러운 삼 행을 써 보기로. 내가/거기/있었더라는. 그러나 회고 아닌 목격담만을 후술하자. 먼 앞을 바라다보며, 나의 쓸 수밖에 없음을, 고작 나를 쓸 수밖에 없음이라는 참 너절한 형식으로.

시류라든지 풍류라든지, 그런 것들에 따라 나의 이 정형시는 끝내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만 서식지를 옮겨 다닐 테지만,

그리하여 눈 감지 않기로. 뜬 눈 속에 되도록이면 잔상 하나 담아 두지 않기로. 못 수면에 가득히 비친 물비늘이 나의 눈을 멀도록…… 하게 가만 놓아두기로. 하기로 했으면 영영 맡겨 보기로.

나, 그리고 내 머나먼 앞날들이 덩어리째 뭉쳐 다가오는구나. 쓴다. 점차로 닥쳐오는 내 우묵한 뒤통수들, 호롱불처럼 길어진대도. 쓴다, 쓰겠다. 그러다가 땀나무 되어 픽, 쓰러지겠다.

三

전기수의 이야기를 읽는 전기수인 나. 동네 어린애들 내 주변을 에워싸고 귀동냥한다.

“오랜 시간,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 왔다.”*

한마디에 저마다 다른 표정 짓던 아이들. 턱을 괴며 골똘해지는 아이와 부적에 적힌 붉은 글씨체처럼 양미간을 찡그린 아이, 내가 저 소금쟁이인지 저 소금쟁이가 나인지 알 수 없어 못 속으로 뛰어드는 아이

의식이란, 어디 뽕뽕 숨어 있다 어디로 서려 드는 것인지……

이 계절도 곧 다음 계절을 낳게 되겠지. 다음 계절은 그다음 계절을

날게 될 거고.

나, 지금과 같이 뜬 눈인 채 사계절을 서 있을 수 있다면. 순환을 하나의 잘 매듭된 고리로서 믿게 된다면, 대문에다 붙이면 문고리, 그것을 잡아당기자 열리는, 정녕 그럴 수만 있다면.

잠시 그러나 바람 불어 눈을 감. 뻥. 하는 동안 잃어버리게 되는 시간들이 있어 내가 나를 결코 믿지 아니하기로. 다만, 자생하는 산과 하늘, 그 속을 휘젓고 다니는 반디, 솔나방, 버드나무하늘소 들께 이 지면을 떠넘기겠네.

밀봉

저녁엔 계란 후라이를 하려다 스크램블이 되어버렸지
영망으로 뒤섞인 흰자와 노른자 앞에서 되돌릴 수 없어 계속 뒤섞으면서
후라이보다 더 맛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노란색을 잃은 계란 앞에서 나는 그저 요리에 실패한 사람
후라이도 스크램블도 할 줄 모르는 사람
저녁을 차려주겠다 약속했으니까 다 타버린 그것을 싱크대에 버리고
새로운 계란을 꺼냈어
터지지 않게 섞이지 않게 반숙으로

퇴근하고 돌아온 너는 지친 얼굴로 계란을 터트리면서
예쁘게 잘 만들었네 맛있다 새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었지

흐르는 노란색 사이로 희끗거리는 흰자
입안의 어둠이
서로를 붙잡고 뒤엎키는 동안

싱크대에 초파리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날아들었다

내일은 내가 초파리 제거제 사 올게

유리를 긁어 불편한 소리를 내는 젓가락

네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남은 노른자에 옮겨붙은
검은 점들
그릇을 들어도 도망가지 않는
싱크대로 가져가 버린 계란 옆에 둔다

내일은 네가 초파리 제거제를 사 올 것이고

그것의 효과를 위해 타버린 것들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싱크대 벽면엔 아래로

아래로 조금씩

흐르는

마르지 않은 물방울

환풍기를 틀어도 사라지지 않는 탄내

물을 틀면 초파리와 노른자 타버린 계란이 모두

배수구로 밀려들어 간다

초파리 제거제를 쓰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면

죽지 않은 것들이 날아올라

너의 얼굴에 붙고

소리 지르며 주저앉은 네 옆

뚜껑을 닫는다

조용하다

복

선생님 긴급 환축입니다. 문이 열리고 가시복이 실려온다. 행복의 독을 음독했습니다.
가시복은 부풀어 있다 아마 살면서 가장, 스스로가 커지고 싶었던 것 이상으로.

저기요 가시 좀 넣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새벽에 진상이 가게를 헤집고 가세요. 핸드폰을 입 속에 집어넣기는 쉽지만 부푼 볼은 어쩔 수가 없다. 자 천천히 호흡을 정리하자. 가시에 신경을 쏟는다 아아 신경독이 나올 것 같다 나의 퇴근이 복어들의 출근길을 방해한다 옆 복어가 몸을 잔뜩 부풀린다 그 뒷 복어도 또 그 앞 복어도…… 불룩한 지하철에서는 어느 역까지 왔는지 보이지 않는다. 집에 도착할 즈음에는 복어지리가 돼 있을까.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으니 지느러미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느러미가 빠지면 큰 일이다 히레사케를 남겨야 하는데 죽을 때만큼은 준마이 다이긴쥬에 우려지고 싶은데. 다른 복어들도 필사적으로 지느러미를 사수한다. 늙은 복어가 스크린도어에 끼여서 헬륨이 빠지는 소리를 내다가 문이 다시 열린다 비좁은 한뼘에라도 몸을 구겨 넣고 싶은. 옆자리의 까치복에게서 미역 썩은내가 난다 아침에 뭘 먹고 온 거야. 이 역겨운 냄새가 달큰한 쌀의 향기와 합쳐지면… 침이 흐른다. 그리고 이 복어는 나를 힐끗 쳐다보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장기가 비치도록 부풀어 오른 그에 의해서 복어들이 밀쳐진다 투명해진 피부를 넘어 정차한 역이 보인다 병원이 가까워온다.

선생님 몸이 계속 부풀어서 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나는 배를 문지른다. 다음번엔 레시피를 써 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요새도 회식이 잦은가요 산란기에는 조심하셔야죠. 아쿠아리스트는 진단서에 자율 격리 권고 기간을 기재한다. 콜라 30캔 묶음을 받는다 내 소비기한이 한 달 늘어난다. 치사량을 넘겨서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래봤자 복은 부푼다. 지하철은 정거장마다 멈출 뿐이니까.

왼쪽 눈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밖으로 밀려 나온다 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구나. 배가 쪼그라들면서 나오는 물에 창자가 섞여 있다 부레가 펄떡펄떡 뛰면서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하지만 가시에 찢려서 추욱 늘어진다 눈이 데구르르 꺼먼 피 위를 헤엄치다가 멈춘다.
피유유유유 마지막 숨.

허… 이 양반 복지리도 없구만.

키위

작은 학교의 작은 숲에 나무를 심었지 각자의 나무에 이름을 붙이고 돌보아 주세요 여러분의 묘목이 멋지게 자라나 안락한 그늘을 드리울 때까지

열매가 맺히는 건 언제쯤일까

창밖을 보며 날씨를 가늠했어

해가 떠도 비가 와도 기뻐지만 바람이 불 때면 두려웠지 어린아이의 팔처럼 앙상한 가지가
흑시라도 꺾이진 않을까 아직 영성한 뿌리가 힘없이 뽑혀 나가진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 위로 우수수 떨어지는

새들

더는 날지 못하게 된

울지 않는 부리들을 나무 아래 심어 주었지 흙모래가 손바닥에 상처를 남겨도 아픈 줄 몰랐
어 입속이 허는 것도 모르고 새콤한 과일을 먹을 때처럼

따끔거리는 손끝으로 잠든 새의 눈꺼풀을 쓰다듬으면 새의 꿈을 엿볼 수 있다 까르르 메아
리치는 웃음소리와 다가오는 거대한 삽

순식간에 어른이 되어버리는 아이들과 메마르는 나뭇가지

작은 숲의 저편에선 새들이 날아오르고 뜻 모를 노랫말을 지저귀며 나무와 나무 사이로 날
개를 펼치며 학교를 떠나가는데

작은 나무는 기지개를 켜듯 여린 가지를 뻗고

씨앗처럼 웅크린 새는 보드라운 흙 속에서 숲의 꿈을 꾸지

바람과 비구름이 지나고

다시 햇빛이 드리울 때에도

내 나무의 이름은 키위

키위가 열리지 않아도, 키위나무